

우리 교회에 새로운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날이다. 중직자라는 말은 “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”라는 의미로만 붙잡으면 안 된다. 부담되고 짐이 될 수 있다. “중요한 축복을 누릴 사람”으로 붙잡아져야 한다. 그래야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“행복한 중직자”, 중요한 일들을 하고도 “하나님의 축복이었다”고 고백할 수 있다(고전15:10) **그런 면에서 오늘 제목이 “중직자가 누릴 세가지 축복”이다.** 그러면 이 말씀이 중직자들만을 위한 것이냐? 본문에 약속하신 이 축복은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이다. 3절에 “귀를 기울여 내게 와서 들으라”고 했다. 집중하고 붙잡으라는 것이다.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세워지는 “영원한 언약”이라고 했다. 먼저는 다윗에게 주셨고,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라는 것이다. **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다.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가 아니고, 평신도요 중직자의 모델로 봐야 한다.** 직업이 다양했다. 목자이기도 했고, 늘 전쟁터에서 싸운 군인이기도 했고, 정치인으로 왕으로까지 쓰여진 사람이다. 행13:22에 “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” 했다.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축복한다. **참고할 만한 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고 이루실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였다.** 나라가 망하고, 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. 여기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,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다. 반드시 누릴 축복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. 사실은 이 언약을 놓쳐서 어려움도 당했고,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릴 그릇을 만들게 하신 것이다.

1. 세가지 실제적인 축복을 약속하셨다(4절).

-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 받고,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결론적인 축복이다.
- 1) **증인의 축복이다.** “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다”고 했다. 행1:8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로 그 언약이다.
 - ① **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보고 복음의 능력을 볼 정도로 축복받고 쓰임 받으면 된다.**
다윗이 어느 정도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인 줄 아는가? 일단 그가 기름부음을 받을 때의 나이가 턱에어지 때였다(삼상16:12-13). 사무엘이 방문할 때 공식적인 예배 행사에도 못 왔다. 나중에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는 조롱할 정도였다(삼상17:42). 어른들이 실수 하는 것이 이것이다. 어리다는 것이다. 실제로 가진 것도 없었다.
 - ② **이 어리고 가진 것이 없는 다윗을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과 원수들과 후대와 세상이 보는 증인으로 세웠다.**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이가 어리도 상관없고, 늙어도 상관없고, 부족하고 실패했어도 상관없다.
 - 2) **전도자의 축복이다.** “내가 그를 만민의 인도자(Leader)로 세웠다”고 했다. 인도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?
 - ① **어떤 그룹에서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다(보스와 리더의 차이점).**
 - ② **그 함께 가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(요13:14).**
심지어는 나와 다른 사람, 원수하고도 같이 갈 수 있다(아브라함 링컨이 시대적인 지도자였던 이유)
 - ③ **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미리 알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(비전).** 사실은 이것이 전도자의 축복이다. 불신자들이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. 문제가 깊어지는 데 그 문제에서 빠져 나오는 길을 모른다. 가정과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하고, 영적 문제가 왔는데 해결하는 길을 모른다.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는 길을 모른다. 그래서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주신 것이다(요14:6). 그 길을 말해주기만 하면 된다.
 - 3) **영적 사령관의 축복이다.** “내가 그를 명령자(Commander)로 세웠다”고 했다.
 - ① **사령관은 단순한 계급이 아니다. 전쟁터에서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이다.** 영적인 힘을 가지고, 그가 가는 곳에 모든 대적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다(마12:28).
 - ② **이 세가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?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, 응답이고, 증거다. 안 되는 일도 되어지고, 막혔던 문도 열리고,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살아나는 것이다(5절)**

2.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(실현)하신다는 것이다. 그래서 내가 훈련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(새 틀, 새 그릇)
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원죄, 가문의 문제, 상처, 무능, 사단, 지옥까지 끝난 것이다(요19:30) 다시 문제가 온다. 속지마라. 나를 치유하고, 강하게 하시고, 그릇 준비시키는 시간이다. 세가지 훈련하라.

- 1) **성령충만을 지속해서 누리는 훈련이다. 이것이 “기름부음”의 축복이다.**
등잔은 있는 데 기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?(마25장의 열 처녀의 비유)
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사무엘을 보내 먼저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이것이다(삼상16:13)
 - ① **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언약이다.**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 전에 택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(엡1:13),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다(요일2:20).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실 자로 구별하셨다는 의미이다.
 - ② **신분과 권세에 대한 언약이다.** 벰전2:9에 우리를 “왕 같은 제사장”으로 부르셨다고 했다.
 - ③ **성령의 능력에 대한 언약이다.** 예수님도 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음을 받으면서 사역하셨다고 했다(행10:38)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리고, 바꿀 수 있나? 성령의 능력(오력)으로 충만하고, 채워지도록 기도하라. 깊은 기도를 훈련하라.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구하는 기도이다(고전2:10).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다(눅11:13). 사실은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구하는 솔직한 기도이다(고후12:8-10)
- 2) **오직, 유일성, 재창조를 체험하는 훈련이다.**
 - ① **다윗이 기름부음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. 성령충만을 누리면서 하는 훈련이다.**
평상시에, 새벽에, 한 밤중에, 특히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에 이 오직의 고백을 한 것이다(시18, 시23, 시62편)
사실은 이것이 영적 씨앗의 훈련이었다. 그 힘을 얻고 나니 작은 일을 해도 유일성,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.
 - ② **이 역사를 체험하면서 계속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(모든 사람, 모든 민족, 모든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)**
- 3) **미래를 준비하는 훈련이다. CVDIP라는 말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.**
다윗이 그렇게도 하고자 했던 미래가 있었다. 성전 건축을 향한 꿈이었다. 단순한 외형적 건물이 아니었다.
 - ① **모든 민족을 살리는 꿈이었다. 하나님의 소원이었다. 왕이 되기 전에 가진 꿈이었고 비전이였다(시57:9-11)**
실제로 성전에는 “이방인의 뜰”이라는 장소가 만들어져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(막11:17)
 - ② **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훈련시키는 꿈이었다. 성전이 후대를 훈련시키는 장소였다(눅2:42)**
빈 예배당이라도 찾아서 곳곳마다 후대를 위한 성전과 RUTC를 세워야 하는 이유다.
 - ③ **다윗에게 성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.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이 마음에서 시작되기를 바란다. 그리고 이 땅에서가 아니다.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영원한 영광과 면류관이 되기를 바란다.**

결론-행복한 중직자, 그래서 237개국 살리고, 다민족, 램넛트 시대를 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시는 중직자, 모든 성도, 모든 램넛트들이 되기를 축복한다.